

국민 10명 중 3명만 ‘언론 신뢰한다’

우리나라 언론은 전문적이고 활동이 자유롭지만, 상대적으로 신뢰성·공정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할 수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28.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6%로 부정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이 공정하다’라는 의견에는 21.9%만 동의했고, ‘정확하다’는 항목에는 28.3%만 긍정했다.

언론에 대해 ‘전문적’(47.6%)이고, ‘활동이 자유롭다’(41.8%)고 평가한 것에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조사됐다. 이 같이 언론의 자유신장과 반비례하게 나온 언론 공정·신뢰도는 불신이 커지고 있는 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KBS(2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JTBC(17.9%), MBC(10.9%), 네이버(10.6%), YTN(8.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에도 KBS가 29.1%로 1위를 차지했고, 네이버가 16.5%로 2위에 올랐다. 특히 2030세대는 영향력·신뢰도가 높은 매체를 묻는 질문에서 네이버를 선택한 비율이 각 36.0%, 25.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포털도 ‘언론’, 뉴스신뢰도는 전통매체가 높아

인터넷 포털과 메신저 서비스, SNS,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하여 언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인터넷 포털은 언론’이라는 인식 비율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매체에 따른 뉴스 신뢰도에선 TV와 종이신문 등 전통매체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제공 뉴스나 시사정보의 신뢰도는 텔레비전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포털은 3.19점으로 조사됐다. SNS를 통해 접하는 뉴스의 신뢰도는 2.61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잡지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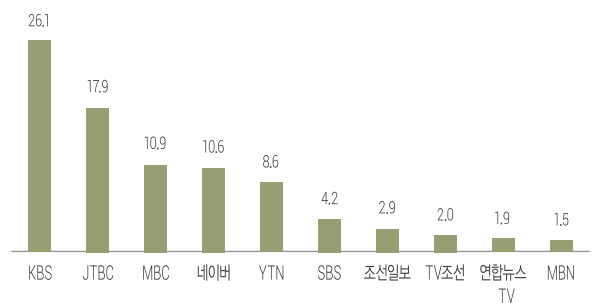
〈표 1〉 언론에 대한 인식

(단위 : %, 5점 척도 평균)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평균(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나라 언론은 공정하다	40	33.7	37.7	40.4	21.9	21.4	0.5	2.81
우리나라 언론은 전문적이다	2.6	15.4	18.0	34.4	47.6	40.6	7.0	3.34
우리나라 언론은 정확하다	3.8	27.3	31.1	40.6	28.3	26.2	2.2	2.96
우리나라 언론은 신뢰할 수 있다	4.7	25.9	30.6	41.3	28.1	26.3	1.8	2.95
우리나라는 언론활동이 자유롭다	2.2	14.3	16.5	41.6	41.8	34.6	7.2	3.30

〈표 2〉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매체사 상위 10개

(단위 : %)



〈표 3〉 매체별 신뢰도

(단위 : %, 5점 척도 평균)

구분	신뢰하지 않는다			반반 이다	신뢰한다			모름	평균(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종이신문	1.7	16.4	18.1	39.0	39.1	37.7	1.3	3.9	3.21
텔레비전	0.8	10.3	11.1	31.8	55.4	51.1	4.2	1.7	3.49
라디오	1.1	14.1	15.2	45.7	33.2	32.2	0.9	6.0	3.19
잡지	3.6	37.7	41.3	44.0	8.7	8.4	0.3	6.0	2.62
포털	1.4	16.8	18.2	38.8	36.5	35.6	0.9	6.5	3.19
인터넷 뉴스 사이트	3.2	29.6	32.8	43.1	16.8	16.1	0.6	7.3	2.80
SNS	4.8	36.5	41.4	39.2	10.2	9.9	0.3	9.2	2.61
메신저 서비스	4.6	34.2	38.8	43.0	11.6	11.2	0.4	6.5	2.66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5.4	34.6	40.0	38.2	10.7	10.2	0.5	11.1	2.62

▲ 언론진흥재단 2019 언론진흥수용조사 결과

각 2.62점 이었다.

한편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나 시사정보를 얻은 경로를 묻는 질문에 텔레비전이라고 답한 응답이 53.2%로 절반을 넘겼고, 포털이 39.1%로 뒤를 이었다. 종이신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를 꼽는 응답은 모두 2%를 밑돌았다. **K A A**

김다혜 dahye@kaa.or.kr